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19

행복의 기준이 낮아진 것을 느낍니다. 막잡이라도 이부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통조림이나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동하며 무엇보다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후쿠시마현의 해변대로인 국도 6 호나 센다이로 향하는 바닷 길은 나도 빈번하게 다니던 길이고 특히 이번에 수몰지인 센다이공항에는 자주 해안가의 길을 운전하곤 했습니다. 3 월 11 일 지진 재해의 그 날 그 시간에 어쩌면 내가 센다이공항에서 고립상태가 되거나 해일에 떠내려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서 나를 피해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주 일박 예정으로 각지에 흩어진 성도를 방문하여 집회를 열었을 때, 한달 육개월만에 성도님댁에서 코다츠에 발을 넣고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펼쳐보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마음편히 쉰다는 아주 평범한 일인데도 너무나 그리운 일상의 풍경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곳에서 아침에 대접받은 차한잔과 된장국이 어찌나 맛있었던 지,,, 도쿄에서 기다리는 모두를 상관 않고 아내와 저 둘만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교회에서 필요한 인감이나 통장을 찾으러 지진 재해후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저의 몸전체를 새하얀 방호복으로 감싼채 적잖은 긴장감을 느끼며 들어가보니 벚나무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울벚나무는 예전에 이렇게 핀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개는 도로에 엎드린채 제게 길을 내주지 않았고, 소들은 마치 우주복의 인간출현을 의아해 하는 듯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교회 옆에 외양간에 있었던 소들이 방사능 속이지만 어떻게든 살라고 주인이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교회를 둘러보러 가보니 18 마리나 교회 뜰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들을 위해 2년전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나 개 너구리에게라도 교회를 지키게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 뜰에 정말로 18 마리나 되는 소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하고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소는 교회 옆 목초지에서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풀을 뜯으며 우리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세요?'라기 보다는 '야~ 이상한 동물이 왔다, 옛날에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 ' 라고 소들이 눈으로 얘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벚나무도 사람들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화려하게 만발해있었고 동물들도 교통사고의 걱정없이 도로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꽃축제라 하여 나무 아래서 사치스런 소란함도 없고 조용한 자연그대로라서 꽃들도 훨씬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 봐주지 않는 벚나무가 가련하다’라는 등 인간의 오만을 사방에 흩뿌렸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일단 인간을 에덴의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퇴장시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숨 막히는 방호복 속의 내 머리를 스쳐지나갔습니다.

지금 이러한 생각들은 망상일까요? 아니면 꿈일까요? 혹은 바벨탑인지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재현인지요? 아니 이사야 11 장에 예언된 구세주 예수에 의해 구제될 세계의 개막으로 받아들이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뱉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 장 1~9 절)

이새의 뿌리인 다윗왕의 자손으로서 구세주 예수가 태어나시면 그는 드디어 전인류의 왕으로서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 때에는 오묘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내고, 습격 당하거나 상처를 입지도 않으며 표범도 새끼염소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며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어 그 뒤를 어린아이가 쫓아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경은 이제껏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자가 초식동물이며 암소와 곰도 함께 풀을 뜯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에서 장난치며 젖 덴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는 믿지 못할
광경입니다.

이야말로'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런 세상 얼마나 좋을까요. 끝없는 대해와 같이 주를 아는 지식과 신앙이
땅에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지나칠 정도로 자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영역에까지 깊이 파고들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완전히 변해 버린 고향에 남겨진 화초나 동물들을 관찰하며
지금까지 이 세계를 제 것인양 활보하고 있었던 인간이 혼자 떼버려져 떠있는 것같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어느쪽이 원래의 모습이었던 것일까요.

사람도 가축도 화초들도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위 아래도
아니지만 인간세계가 어느새 멋대로 겹겹이 쌓아 온 모래 위의 누각이 일거에
허물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새로운 세계의 개막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방호복으로 숨이 찬 탓일까요? 망상일까요?

그런데 남겨진 동물들의 늪늪한 무용담(?)도 들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18 마리의 소들과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인간이 운전하는 차 앞에서 끝까지 길을 양보하지 않은 강한 의지를 보인 개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 두고 온 고양이가 냉장고를 열고 식료를 확보하여 살아남았는데 애완 고양이가 야생화하여 문을 여는 순간 활기차게 집에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에 가둔 채 두고 온 개가 아마 백골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삭빠르게도 주인 집에 들어가 집안의 식료를 잘 먹으면서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뜯소문이 흥흥함에도 굴하지않는 듯이 빨래도 밖에 널고 밭을 갈아 농사를 지으며 힘써 밝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낙심하지 말고 수양버들 같이 강하면서도 유연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고향의 저 소들을 보아라.

인간의 존재여부에 아랑곳 없이 곱게 물들어 피어있는 꽃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옆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 편 23~24 절)

우리의 발걸음이 아무쪼록 당신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우리들을 단련시켜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있으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4 월 26 일 사토 아키라((佐藤 彰)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20

이번주에 한 형제가 54 세로 천국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후쿠시마에서 초상 전야식을 하고 내일은 화장을 치르고 모레는 도쿄에서 추모예배를 가질 예정입니다. 월요일에는 다시 현지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한달 반 동안에 두차례의 장례식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아침에는 한 성도가 '모두 고향에 돌아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이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스럽습니다.

장례식이나 추모예배를 후쿠시마와 도쿄에서 엇갈려서 번칙적으로 하는 것은 피난

생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이해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과 내일은 현지에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향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갑니다. 이 곳을 비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피난 생활 때문의 변칙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상복이 없어 이번에도 평상복으로 참석합니다.

2 주일전에 50 세인 자매의 장례식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 형제의 장례식은 솔직히 많이 괴로웠습니다.한 성도도 빠짐없이 모두 교회에 돌아와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한 성도가 떠나고 또 한 성도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이 가슴을 저칩니다.

형제는 30 세 때 악성임파종양으로 위를 전부 들어낸 후 힘들게 투병 생활을 극복해오던 중 지진 재해 로 54 세의 한창 나이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교회를 내 집같이 드나들며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 보다도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어 동시통역 봉사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단지 돌아가시기 전에 지진피해로 인해 피난 할 수 밖에 없었던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형제님 홀로 병원에서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후 소문이 흉흉한 중에 병원에서 물자나 약이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그는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들도 몇번인가 방문은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도쿄와 후쿠시마 간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갈 때마다 이별할 때의 그의 악수는 무언가를 의미하기라도 하듯이 언제까지나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의 극에 달한 투병의 괴로움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가장 어울리는 여행의 날로 부활절을 택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에 관이 꽂아져도 필담에 힘을 주어 '부활. 사명이 있다'라고 쓴 형제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120 년. 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토지를 바라보고 결국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생애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그의 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머지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두 인계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 손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나그넷 길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디까지인지요.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는 지요.

우리는 단지 각자에게 준비되어있는 행정을 힘써 완수할 뿐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배턴을 건네 주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금주는 온세계가 부활절입니다.

부디 일련의 장례식이 지진재해 중이라해도 평상복으로 참석한다해도 그에게

어울리는 부활의 희망이 넘치는 진심어린 장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4월 30일(금) 사토 아키라(佐藤 彰)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2 1

지금 지진재해 피해보고 집회를 위해 오키나와로 향하는 중입니다. 그저께는 또 다시 교회 멤버가 천국으로 향하셨습니다. 연세 많은 자매님이 지병과 골절을 견디며 피난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지진 재해가 없었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이라고 상정하여 바꿀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 달 동안에 3 명의 성도를 천국에 보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한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주 형제의 장례식에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초상 전야식과 영결식에 각각 60 명가량의 성도님들이 여러 피난소에서 급히 와주셨습니다.

마치 흠어진 교회의 동창회같다고 속삭이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도 형제가

자신의 죽음으로써 지진 재해로 뿔뿔이 흩어진 그리운 성도들을 한 달 반만에 장례식장에 모아서 만나게 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형제와 그 가족도 장례식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진 재해로 마음이 불안한 이때에 영어클래스의 학부모나 학생들 또한 직장동료나 친척분들이 많이 오셔서 마치 전도회같은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는 가고 없지만 그의 신앙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 장 4 절)에서 말씀하심같이 생명과 신앙은 계승되고 있습니다. 부활 주간엔 장례식과 병행하여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지진 재해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하게 흔들려 복음을 향한 마음 문이 열리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형제는 알게 모르게 전도를 위한 절호의 시기를 가늠한 것같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으로써 사람들에게 구세주 예수를 증거하고 천국의 희망을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은 두 차례의 장례식을 전후로 세례식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6 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진 재해후 처음으로 목욕탕에서 세례 받은 자매는

예정이 지진 재해 직후인 3 월 13 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방사능 누출 사고로 마을 전체가 강제 피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전화해서는 '다음 주 일요일에 세례식이 있습니까?'라고 문의했습니다. 물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식은 부목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고,,, 또한 현재의 오쿠타마복음의 집 가까이에 있는 맑은 강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강물이 상당히 찬 것같으니 이것도 부목사에게 부탁해야겠다는 등등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며 웃었습니다.

괴로움과 중압감에 싸여 있으면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기쁨이 몇배로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에서 밝은 뉴스가 흘러나오지 않나하고 마음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일 지 모릅니다.

뭐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밝게 해주는 뉴스가 흘러나오지 않을까하고,,,

우리 교회는 세례 때 전신을 물에 담그는 전통이 있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가 낮은 캠프장 목욕탕에서 어떻게 세례식을 해야 할지 조금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아니면 뒤로 몸을 눕힐 것인지 데몬스트레이션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물에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만, 먼저 세례를 받은 자매는 물에는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날 앞으로 몸을 눕혔는데 한참 지나도 그녀는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날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해 받을 수 없었던 분까지 물에 잠겨 있으려고 하는 것일까하고 조금 여유로운 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그녀가 천국에 가버리면 큰 일이라고 당황해서 그녀를 물속에서 끌어 올렸습니다.

'아,,, 정말로 천국에 가는 줄 알았다' 이런 세례식도 처음이었습니다. 지진 재해는 생각잡은 일을 체험하게 합니다.

오키나와로 가는 도중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안입니다. 하마마츠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도중에 모노레일이 바닷가 옆을 달렸습니다. 문득 만약 이곳에 지진이 일어나 해일로 덮치면 흔적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이 모노레일 안에서 천국으로 향할지도 모른다고.

세례식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능 누출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례받기를 간절히 바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이나 다음 주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의 배후에는 분명히 지진 재해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헤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도 방사능이 어떻든가 강물이 찰 거라든가 하며 움츠러들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되지 않도록 지진재해 속에서도 전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사소한 느낌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요전에 지갑 속에서 이 가게 저 식당의 포인트 카드나 기간 한정 무료식사권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어쩐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빨리 써버릴 것을 하고 후회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마치 감자 덩굴처럼 후회되는 일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니 집수리 한 것이나 떠나오기 직전에 교환한 보일러나 액정 TV 까지,,, '이럴 줄 알았다면 사지 말 것을,,,'

'쓰지도 못할 것을 왜 교환한 건지' 이렇게 꼬리를 물고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모은 포인트 카드는 있어도 가게가 폐쇄되고 거리에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마음은 언제까지나 미련에 얽매어 물욕의 강한 집착에서 헤어날 수 없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는 안되는 것을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렇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그쳤습니다.

지금 향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일어섰고 기도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른바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일일이 방문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지원을 감사드립니다.

5 월 5 일(목) 어린이 날 하네다출발 나하행 상공에서

사토 아키라(佐藤 彰)